

# 광주·전남 58곳 불 나도 소방차 못들어간다

### 대부분이 도로 협소한 주거지역...화재 땀 대형 참사 우려 골든타임 도착률도 떨어져...소방도로 확보 등 대책 시급

광주·전남지역에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5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발생 이후 소방차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도착률도 광주와 전남이 지난해보다 각각 5.0%포인트, 8.4%포인트 떨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2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도로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58개 구간은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전체 화재건수는 956건·2454건으로 1일 9.3건꼴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들 지역에 대한 진화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부적으로 광주의 경우 7개 구간 1170m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고, 전남 51개 구간 13.29km도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는 7곳 모두 주거지역이었으며, 전남은 주거지역(27곳)·농어촌 및 산간도서지역(22곳)·보전지역(2곳)이다. 광주는 동구 소태동 3번길 19번지~31번지(135m), 동구 필문대로 273번길 5~289번길 29(120m) 등 대부분 주거 지역이다. 화재 진입이 늦어질 경우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들 대부분 지역은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너비 2.36m인 5t 소방차의 경우 적재한 화재진압장비를 감안하면 적어도 도로폭은 4m(구급차는 3

m) 이내로 확보돼야 한다. 실제 동구 필문대로의 경우 도로폭이 평균 2.5m에 그쳤다. 전남에서는 장흥군 대덕읍 탐산사 진입로(1km)는 도로폭이 평균 1m였다.

광주·전남지역 시·도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의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를 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교통혼잡으로 인해 현장진입이 지연된 연소확대 화재는 광주(5건)·전남(19건) 등 모두 24건이었다.

또 지난 6월 30일 기준 광주·전남 소방차들의 5분 내 현장도착률은 65.3%·45.4%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0.3%·53.8%보다 5.0%포인트·8.4%포인트 각각 감소한 수치다. 전국 소방차 5분 내 현장도착률은 평균 54.3%였다.

이 같이 '골든타임'이 후진한 것은 불법주정차와 교통체증 등 외부적인 요인이 크지만 각 소방서의 안일한 대처도 한몫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5분 내 출동률을 높이기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등 상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소방활동 중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소방관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광주(5개)·전남(14개) 소방서 중 보건안전관리 전담 부서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소방본부에서조차 보건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두지 않고 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소방시설 꼼꼼히 점검 26일 광주 북구청 청사관리팀 직원들이 화재예방을 위해 청사 소방시설과 소화기 등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제천 스포츠센터 소방점검 업체 압수수색

### 소방시설 미비 목인 등 조사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충북지방청 수사본부가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25일 건물주와 관리인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 불이 난 건물의 소방 점검을 맡은 강원도 춘천의 한 소방전문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5분부터 2시간 동안 17명의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본체와 소방 점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J사는 지난해 30일 건물주인 이모(53)씨

의 의뢰를 받아 건물 소방 점검을 했다. 경찰은 이 업체가 건물 내부 소방시설 미비한 점을 목인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26일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건물주 이씨에 대해선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스포츠센터 건물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소방시설이 허술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 세월호 집회 취재 중 물대포에 다친 기자 국가 배상 판결

세월호 집회 현장을 취재하다 경찰이 손 물대포를 맞아 다친 기자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모 인터넷언론사 기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국가는 김씨에게 44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시위대와 2~3m 정도 떨어져 촬영하고 있었고 살수된 물줄기에 맞아 눈 부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 사건 살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이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시위대와 떨

어져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사 기자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액을 치료비 10만원, 카메라 파손에 따른 중고 카메라와 렌즈 구입비 230만원, 위자료 200만원으로 산정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시청광장 등에서 개최한 '세월호 범국민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을 취재하던 중 경찰 살수차에서 발사된 물줄기에 맞아 다치고, 들고 있던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다. /박진표기자 lucky@

## 심야 버스 훔쳐 수십km 아찔한 질주

### 운전기사 편의점 간 틈타 나주서 영암까지 무면허 운전

### 경찰 추격 끝 50대 남성 검거 "성능 시험하려" 오락가락 진술

심야에 광주와 나주를 오가는 시외 버스를 훔친 뒤 수십 km를 운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무직인 김모(51·영암군)씨는 지난 22일 밤 10시30분께 나주시 영산포터미널 인근 편의점 앞길에 정차된 '전남71아 ××××'호(운전기사 송모씨·51) 시외버스에 몰래 올라탔다.

추격전을 벌이던 경찰은 김씨의 예상 경로를 파악한 뒤 영암군 학산면 S m 떨어진 편의점 앞길에 정차중이었는데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송씨는 다음날 새벽 5시10분 첫차 운행(나주→광주)을 배정 받은 뒤 인근 속소에 가기 전 야식을 구입하려고 무면허 운전자인 김씨는 운전대를 잡자마자 영암방면으로 향했다.

송씨는 자신이 운행하던 시외버스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10여km 이상을 달렸다. 만약 이 과정에서 승객을 태웠다면 끔찍한 상황

이 벌어질 수 있는 순간이었다. 김씨의 무한질주는 영암 삼림조합 앞길에서 제지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김씨가 몰던 시외버스를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멈춰서지 않았다. 김씨는 '갈지'자 운행을 이어가면서 영암읍내를 활보했다. 읍내를 상가와 인구 밀집지역으로, 사고 발생 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경찰이 순찰차로 시외버스를 추월해 수 차례 가로막았지만 김씨는 시속 80km 속도를 유지하며 내달렸다.

추격전을 벌이던 경찰은 김씨의 예상 경로를 파악한 뒤 영암군 학산면 S m 떨어진 편의점 앞길에 정차중이었는데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시외버스 성능을 시험해 보기 위해 해당 버스를 훔쳤다"며 황실수술했다.

경찰은 "진술이 오락가는 바람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데도 애를 먹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영암경찰은 지난 22일 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대법 "자필로 직접 서명한 것만 보증 효력 인정"

보증인이 자필로 서명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보증에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대법집회 D사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전화통화에서 연대 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그 답변 내용을 부정했고,

실제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이름이 조씨의 필체와 다르다고 보임으로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가 직접 서명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조씨를 도와서 명확히 가려야 하며, 조씨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대부업체)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1, 2심은 조씨가 전화로 자필로 서명했다고 확인한 점을 들어 D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배우 윤손하 학폭 논란 아들 학업 중단하고 캐나다행



배우 윤손하가 올해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아들의 국내 학업을 중단하고 아들과 함께 캐나다행.

윤씨의 아들은 지난 4월 서울 송의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가해자로 밝혀졌는데 윤씨는 아들을 변명하는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확산돼

당시 출연 중이던 KBS 2TV 드라마 '최고의 한방' 하차 요구까지 제기되는 등 곤욕.

윤씨의 소속사 씨엘엔컴퍼니 측은 "윤손하가 아이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캐나다로 갈 예정이 이민은 아니다"면서도 "언제 복귀할지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NPL과 특수물건만이 정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선규 H.P 010-3605-5000